

인터뷰

노동재단연대기금 제안한 권영숙 교수

# 코로나 지원금 받을 만큼 당신은 긴급재난 상태인가요?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당신은 긴급재난 상태였나요?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존재하지 않는 에어컨 대신 오래된 선풍기 두대가 장맛비로 후텁지근해진 실내 공기를 말리고 있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사무실은 단체 유지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근자를 두지 않는 단체답게 둘러앉을 수 있는 기다랗고 좁은 탁자 몇개와 의자 외에는 아무런 집기가 없었다. 풍경은 단 순했지만 각종 소리는 넘쳤다. 빗물은 가로 노라 증폭된 차바퀴 소리와 굵은 빗소리가 활짝 열어둔 출입문과 창문으로 밀려들었다. 권영숙(55·이하 호칭 생략) 사파기금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나직했지만, 주변 소음을 다 누렸다. ‘노동’을 말하는 절박함과 ‘연대’를 호소하는 진심의 힘이 느껴졌다.

“노동재단연대기금 모금은 잘되고 있나요?”  
 “여러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쉬를 거라고 판단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처음에 뭘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어서 나도 쓰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돈을 쓰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재난지원금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가 노동재난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예산나 규모에 관계없이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주 저조하지는 않아요. 첫 한달 동안은 하루에 100만원 정도씩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4천만원 정도가 모였어요.”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치의 1%에 그쳐**  
 사파기금은 지난 4월 말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코로나19 노동재단연대기금’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밀치고 있습니다’라며 ‘국가로부터 전권인이 받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 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단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 호소했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7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이주노동자 지원, 노동활동자 지원, 코로나19 국제연대에 사용할 예정이다(신청: vo.la@TZO,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보통 기금을 모금할 때는 낮은 자제로 읍소전락을 많이 취하는데 노동재단연대기금은 ‘연대는 원조나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식으로 중강해요.”

“윤리적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예지요. 사람들이 보통 코로나19는 나에게도 재난이라고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에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돈을 더 확보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긴 해요. 그러나 이 재난은 기본적으로 중상층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껴 갑니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긴급재난 지원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사거나 와인을 사고 비싼 한우를 사먹는 데 썼잖아요. 그들에게는 결국 이 돈이 긴급재난 구호금이 아니었고, 생활비는 그만큼 곤란했으니까 그 돈을 연대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윤리 의식을 자극하는군요.(웃음)”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당신은 긴급재난 상태였나요?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모두에게 준다고 했더라도 내가 긴급재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를 더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의료 노동자와 물류 노동자의 헌신적인 노동 덕이지요. 그렇다면 코로나 노동재단을 만들고 있는 약자들과 사회적 연대를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대표인 권영숙 박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파기금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재단연대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해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가 모두에게 지원금 줬더라도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눠 갖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코로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중산층·정규직 노동자는 비껴가 소비 촉진하는 마음 이해하나 고통받는 재난 난민과 연대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성공을 이젠 사회적 연대로 이어가야”

상태인지, 자칫 누군가의 몫이 되어야 할 돈을 결국 조금씩 다 나눠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과연 이것이 실효적 재난지원금인지를 각자 한번씩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사회적 연대로 이어가야죠. 긴급한 재난을 겪는 재난 난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국가가 비록 모두에게 주더라도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재난 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해야죠.”

**“단위노조 수십억원 기금 왜 쌓아두니?”**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어서 이미 다 썼을 것 같아요. 모금이 사실 상 끝난 것 아닌가요?  
 “사회연대기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재난 지원금은 썼더라도 개인 돈을 내면 되죠. 돈은 생활비가 있잖아요.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는 실천의 한 방식을 제안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참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인 돈은 상대적으로 적는데 쓸 때는 많이 보여요.”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돈을 모으지만, 이 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

든요. 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체가 부패의 징검다리라고 보기에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그런 방식의 기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파기금이나 재난기금으로 아무리 돈이 많이 모여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다만, 참여자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사파기금이나 재난기금은 그렇게 가는 징검다리이자 마중물일 뿐이죠.”

“연대하기 위해 모금하지만 그것이 해법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적게 모이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사회적 연대운동을 하면서 실망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인간이란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점이지요. 사파기금도 그 점에서 솔직히 꺾임없는 실망의 과정이었어요.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소비수 구실을 했고, 누군가에게 민중노총보다 더 가까이 있던 존재이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실망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 이상으로 연대를 바라보지 않는 점이에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연대를 갈급해하지만, 연대를 생각하면 적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면 연대에 얹혀줬다고 말하곤 하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승리 연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투쟁을 끝내고 전체 노동자와 연대하는 게 빛을 갖는 겁니다’라고요. 자기 투쟁을 넘어서 노동운동 전체,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하는 사람 전체를 바라보는 게 연대거든요.”

권영숙은 2011년 7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불가피한 파업 및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시로, 사회적 파업기금의 조성에 나서’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산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고공농성 투쟁을 지원하는 2차 희망버스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구상한 내용이었다. 지금은 줄었지만, 한때 매달 1만원씩 내는 계좌기 천개에 이르렀다. 사파기금은 돈을 쌓아두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 현장 등에 투쟁기금을 전달해왔다. 지난 25일 비정규직이제그만(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의 ‘죽음과 고통을 멈추는 40리길’ 걷기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77차례 투쟁

현장에 기금을 지원했다(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신청: http://bitly.kr/n4Hj)

“사파기금은 올해로 벌써 9년째인데요. ‘사회적 연대’라는 우리 사회 최초의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였어요. 노조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것은 세계에서조차 우리가 없었고요. 2011년에 사파기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사파기금은 빨리 없어져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민중노총의 단위노조가 수십억원씩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박사해서 전권적인 노동계급 파업기금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야 노조 없는 노동자도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사파기금도 내놔야겠다고 했죠. 민중노총이 응답 해야 할 일이지요. 한때 하지 않던 군요. 노동자들이 직접 맡아서 해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작은 힘이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아직 ‘80년대 살아가는 귀족파’

198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권영숙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다. 대학 졸업(1987년) 뒤 일간지(‘한겨레신문’) 기자로 6년간 있던 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논문을(‘노동계급 없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 동맹정치, 노동운동, 1987-2006’)을 쓰고 2008년 귀국했다. 스태프 페드데 출판사가 박사는문의 출판물 제의했을 정도로 학계의 평이 좋았다. 그는 현재 대학원 등에서 인권과 노동사회학 영역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자리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비정규직 교수로 있어요. 노동 투쟁 현장에는 빠지지 않고요(웃음)”  
 “귀국할 때는 연구자로서 공부에 전념하면서 안전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일교수가 폐사 일하는 게 제게 사회에 더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웬만큼 참가가 막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필라델피아 쌍용차 투쟁이 있었고요. 노동 현실이 제가 한국을 떠날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두 사건이 제게 준 문제 의식이 커서 학회에만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저를 기만하지 않았거든요.”

“법학에서 노동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특이해요.”

“1992년 기사를 관두니까 사법시험을 봐서 인권변호사가 되려고 도전하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1980년대의 뜨거운 변혁운동이 왜 실패했는지, 이른바 86세 대(80년대 학벌의 1960년대생들)가 왜 운동의 길을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변혁의 꿈을 포기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싶었어요. 오랜 공부를 통해 우리의 실패는 노동운을 배제했던 결과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었죠. 1980년대 초반 담론이었던 3민, 즉 민주와 민중, 민중 가운데서도 민주만 남았잖아요. 민중 운동은 모두가 고민하고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러 없거든요. 계급 문제인 민중은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3민의 꿈을 꺾던 80년대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좌파입니다. 아직도 1980년대를 살고 있는 지 모르죠.”

“앞으로 계획은요?”  
 “연구자와 활동가라는 두가지 모두 지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이른바 경력 관리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연구자로서의 활동도 지금은 계좌기 천개에 이르렀다. 사파기금은 돈을 쌓아두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 현장 등에 투쟁기금을 전달해왔다. 지난 25일 비정규직이제그만(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의 ‘죽음과 고통을 멈추는 40리길’ 걷기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77차례 투쟁



2016년 7월 출범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노동 투쟁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치러진 태안화력발전소 해킹운동 노동자 추모분향회를 찾아 분향하고 농성자들에게 무릎꿇고 500개 중 일부를 전달하는 모습. 왼쪽 셋째가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 사파기금 제공